



# 중소지원 관련 정부기관 성과중심 경영 혁신해야

글 권경희 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하 경영원)은 지난달 14일 오전 7시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정부 혁신을 주제로 제18회 중소기업정보화포럼을 개최했다. 중소기업정보화포럼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도구인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정보교류의 장이다. 이번 포럼에는 중소기업을 비롯해 IT기업 대표, 학계,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경영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하고 있는 포럼으로, 특히 올해는 5회 이상 개최를 목표로 보다 유용한 정보를 수요자인 중소기업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청와대 정책실 차의환 혁신관리비서관이 강사로 초청돼 ‘정부혁신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 ▲정부혁신의 개념 ▲정부혁신의 필요성과 그 목표 ▲성공적 혁신을 위한 변화관리 ▲부처혁신 활동 진단결과와 대응 ▲2005년 정부혁신 추진과제 등 정부혁신의 필요성과 성공적 혁신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차의환 청와대 혁신관리비서관은 “지금 세계의 모든 국가는 정부혁신을 통해 발전을 도모해가고 있다”면서 “기업경영이든 국가경영이든 혁신에 대한 저항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받아들여야 성공적 혁신을 이룰 수 있고 혁신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는 게 냉정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차 비서관은 또 “청와대는 혁신의 시발점 위치에서 혁신사령부

역할을 수행, ‘중이 보고(報告) 및 발표’ 문화를 없애고 권위주의 문화에서 탈피하는 등 그 나름대로 정부혁신의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하며 “이를 위해 청와대는 행정 프로세스, 관행,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바꾸는데 주력하며 성과 위주의 정책 시스템과 공무원 문화를 바꾸는데 앞장서 왔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청와대는 문서관리, 과제관리, 기록관리 분야에서 모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혁신의 성과를 매뉴얼로 정착시키고 정책품질관리, 홍보 관리를 통해 일 잘하는 정부, 열심히 하는 공직사회의 역량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성과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 비서관은 이어 “혁신을 이루기 위한 정보화 추진의 수준을 진단한 결과, 중앙부처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산하기관들의 일하는 방식과 대민 서비스, 정보자원관리 등 혁신활동 수준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고객 및 성과중심의 경영혁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산하기관을 비롯해 중소기업들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 항목에 혁신관련지표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들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윤리경영을 공통과제로 추진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을 위해서는 공급자위주의 업무관행과 방만한 예산운용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